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 4. 12.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11. 4. 12.
- 상 정 일 : 2011. 4. 19.(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가. 제안이유

2003년도부터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개선을 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조례를 시민들의 건축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 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강화된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여 전반적으로 건폐율을 10퍼센트 정도 완화함(안 제51조, 안 제52조, 안 제53조)
- 미관기준 적용으로 강화된 건축물의 용적율 규정을 전반적으로 50 퍼센트 정도 완화함(안 제56조 안 제57조)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디자인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제58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학)

- 본 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 2003년도부터 도시의 경관개선과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을 규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건축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내로 완화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2월 25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4월 0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으며
- 조례안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있어 1호부터 21호까지의 건폐율은 동법시행령과 같으나 10호 유통상업 지역에 대하여 법률은 80퍼센트 이하이나 조례는 70퍼센트로 10퍼센트를 달리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2조 제1항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 있어 1호 취락지구에 대하여 법률로는 60퍼센트 이하이나 조례는 40퍼센트 이하로 20퍼센트를 더 규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6조 용도지역 안의 용적율에 있어 1호 제1종 전용주거 지역에 대하여 법률은 100퍼센트 이하이나 조례는 80퍼센트 이하로 20퍼센트를 제한하며 7호 중심상업 지역부터 15호 생산녹지지역까지 20퍼센트부터 600퍼센트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17호 보전관리지역도 법률상 80퍼센트 이하이나 조례는 60퍼센트 이하로 20퍼센트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건폐율·용적률이, 관련 법령 또는 인천시보다 제천시 조례에서 규제가 더 강화된 이유는?(양순경 위원)

나. 답변요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 2003년도 국계법으로 법령이 일원화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미관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에 차이가 있음.
그리고 인천보다 용적률이 낮은 것은 경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었고, 대신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